

# 벚짐산 위에는 ‘千佛’께서 상주하셨네

(麥積山)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 ② 천수 맥적산 석굴

중국 실크로드의 옛 루트는 두 가지가 있다. 실크로드의 시작인 서안(옛 장안)에서 위수-진주-농서-난주를 지나 병령사를 통과해 하서주랑(河西朱廊)에 이르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길은 서안을 출발해 빈현-경천-평량-정원-홍산협으로 가는 것이다.

위수에서 난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진주(秦州)다. 진주는 현재 천수(天水)의 옛 지명으로 한 무제(재위 BC 141~BC 87) 당시 장건에 의해서 서역과 교역할 수 있는 비단길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이곳에 불법을 얻기 위한 구법승들이 모여든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함께 동행한 가이드는 천수를 구법승들에게 ‘베이스캠프’로 소개했다. 스님들을 모셔다 법회를 열고 서역에서 유입된 불경(佛經)들을 한역(漢譯)했던 곳이 천수였다는 것이다. 구법의 길의 관문이기도 했던 천수에 그 불심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수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맥적산(麥積山) 석굴이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맥적산의 유래를 짚단을 포개어 쌓은 모습이라서 붙여졌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실감은 나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10여 분을 오르니 정말 설명대로 짚단을 쌓아 놓은 듯한 기암절벽의 산이 보였다. 기암절벽 사이 대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멀리에서도 확인할 정도로 그 크기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맥적산 석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운강·용문·돈황석굴과 함께 중국의 4대 석굴로 불린다. 석굴의 굴착과 불상 조성은 4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위·서위·북주·수·당·송·원대 등 10여 개 왕조를 거치며 불사가 이뤄졌다. 그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석굴과 소조불상들이 맥적산에는 존재한다. 소조불의 크기부터 형태, 기법까지 다채롭고 자연의 풍광이 한데 어우러져 중국 사람들은 맥적산을 ‘동방예술조소관(東方藝術雕塑館)’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맥적산 석굴은 산의 서남, 남, 동쪽 세 곳의 낭떠러지에 개착돼 있다. 시기는 서쪽 절벽이 오래됐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연대가 내려온다. 가파른 낭떠러지에 194개의 석굴과 감실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으며, 여기에 소장(塑像) 3513구, 석상(石像) 3682구 등 7200여 불상이 봉안돼 있다.

이들 불상들은 대부분 ‘석태니소상(石胎泥塑像)’이다. 석태는 돌을 깎아 윤곽을 만들고 니소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채색을 했다는 것으로 다채로운 표정의 불상들

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석태니소’ 기법 때문이다.

맥적산 석굴에는 본생도와 서방정도변상도와 같은 벽화도 1600여개가 남아있다. 세월에 따른 풍파로 석벽들이 탈락해 상당부분 벽화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길이가 1000m에 이르러 돈황 마고굴 다음으로 많은 양을 자랑한다.

이 같은 다양한 불상과 불화로 맥적산은 많은 이들이 상찬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었다. 실제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맥적산에 대해 “푸른 구름 어린 가파른 절벽 사이에 돌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 만개나 되는 감과 천개나 되는 방이 있는데 비록 사람의 힘으로 이뤘다 하나 신의 솜씨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극찬했다.

### 천수는 구법 여정의 베이스캠프

### 구법승 모셔 법회와 역경하기도

### 짚단을 쌓아놓은 듯한 맥적산에

### 190여 석굴 조성해 부처님 예경

### 북위~당대 불상 변천사 ‘한눈에’

### 짜이진 절벽에 조성된 대불·석굴

### 바라보면 선현들 佛心에 감탄이

맥적산 앞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멀리서도 보였던 거대한 삼존불이다. 대불과 190여 석굴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는 좁고 아찔한 계단을 올라야 한다. 개인적으로 경중의 고소 공포가 존재해 안전 장치가 거의 없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은 고역 중에 고역이었다.

위태롭게 계단을 오르자 동쪽 절벽에 조성된 13호굴 대형 삼존불 입상의 발 아래에 이르렀다.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조각한 삼존불 입상은 그 크기가 15m에 달한다.

이 대불은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문제가 조성한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대업을 기념해 엄청난 불사를 일으켰는데 당시 스님이 23만명, 절 3792개소, 불상 10만6580구를 조성했다. 또한 문제는 맥적산의 정상에 사리탑을 세우고 정역사(淨舍利)란 사호를 내리기도 했다.



맥적산 석굴의 서편 마애불. 멀리서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북위 시기 조성된 것으로 인체가 호리호리하고 청아한 모습이 특징이다.



5호굴에 조성된 불상과 전설 천정 일부.



5호굴의 불보살상. 채색기법이 매우 특이하고 화려하다.

삼존대불이 보여주는 위용은 웅장하기만하다. 하지만 웅장함과 더불어 자비로운 상호와 섬세한 가사의 표현, 산 양으로 펼쳐진 풍광까지 아우러진다. 오로지 지극한 신심으로 만들어졌을 이 절경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대불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 다른 석굴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석굴 상당부분은 훼손을 우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래도 3, 5호굴 등 대표적 석굴들을 친견할 수 있었던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3호굴은 긴 복도의 석굴 형태로 이뤄져

있다. 절벽에 총 297개의 불상이 조성돼 있는데 호상과 수인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채색불의 기법인 특이해 눈길을 끌었다. 9호굴은 산에 의거해 7개의 굴이 병렬돼 있으며, 목조 건축을 모방한 건축물이 앞에 나와 있다.

동쪽에서 올랐던 석굴은 서쪽으로 갈수록 연대가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쪽 석굴의 불상들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만하고 뚜렷한 호상의 당나라 시기가 주류라면 서쪽 석굴의 불상들은 북위 등 비

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됐다. 북위 시기의 불상들은 인체 비율이 호리호리하고 말쑥하고 청아한 호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수불형상’이라고 한다.

순례에 동행한 유근자 동국대 겸임 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북위 시기 불상은 인체 비율이 매우 호리호리하고 청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서 “맥적산은 북위부터 당나라까지 조성된 불상들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맥적산 대불들의 모습을 통해 서산마애불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한국 마애불에서 사라져 복원되지 않고 있는 예불 공간인 ‘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서산마애삼존불과 경주 남산 마애불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불을 위한 공간인 전실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이 같은 전실을 복원하고 있지 않다. 전실이 복원돼야 전국에 산재된 마애불들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예경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석굴은 ‘천불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맥적산에는 ‘천불동(千佛洞)’이라고 불리는 복도 형식의 3호굴이 있었고, 5호굴의 벽화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빼곡이 그려져 있었다.

그 옛날 기암절벽에 수많은 천여 불상을 조성한 것은 순수한 신앙의 발로였을까, 왕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수많은 정적을 죽이고 황제라는 지위를 얻었던 미혹한 자의 참회였을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천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옛 선현들이 조성한 불상 앞에 머리를 낮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전에도 21세기에도 부처님은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m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이 살아있는 도량 ‘영산불교 현지사’-오탁악세에 준엄한 계율정신의 햇불을 들다!

### 출가자는 음계(淫戒)를 생명처럼 지키고 재가불자들은 오계십선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물질적 풍요가 넘실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와 진리 대신에 감각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 이혼율과 범죄율의 급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이 오탁악세에서 행복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예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계율의 중요성**  
불법은 출가 재가를 떠나서 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출가자는 비구(尼)계를 수지함으로써 비구(尼)가 되고 재가자 또한 삼귀의의 서원과 5계를 수지하여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자가 되는 길은 계문(戒門)을 통해서입니다. 계의 1차적인 목적은 방비지악(防非止惡-그릇된 행위를 막아 악을 그치게 함)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계율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 - 좋은 과보를 불러오는 모든 행위의 으뜸이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악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해탈하게 한다.’(정정도론)고 했습니다.

**계율이란 -계율은 방편인 동시에 목표**  
계율이란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불선(不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출가자는 재가자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결심의 측면에서는 계(戒)라 하고,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의 측면에서는 율(vinaya)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불자를 막아 악을 그치게 함입니다.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의 상수(上首-우두머리)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 ‘모든 경전 중에서도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계율은 모든 불자들에게 불선법을 막고 선법을 중시시키는, 행복한 삶과 해탈의 관문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동시에 불법의 목표 자체이기도 합니다.

####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 - ‘청정’의 계율정신 회복해야

“아난더,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대반열반경)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도 불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도 출가자에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파티목카(patimokkha-바라제목차pratimoksha)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 ‘첫문(初門)’, ‘얼굴’의 뜻이 있습니다. 팔리어 포살건도에서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의 상수(上首-우두머리)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 ‘모든 경전 중에서도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계율은 모든 불자들에게 불선법을 막고 선법을 중시시키는, 행복한 삶과 해탈의 관문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동시에 불법의 목표 자체이기도 합니다.

#### 재가자 -오계·십선계를 지키고 불효오역과 훼손삼보의 죄를 짓지 말아야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되는 계가 바로 5계입니다. 불자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야, 불음주의 오계를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활지침이며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정화되고 향상될 수 있는 윤리규범입니다. 오계의 목적은 악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만 불자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선계(신구)의 3업으로 선행을 하게하는 계입니다. 이 5계10선을 잘 행하는 불자는 당연히 인륜도덕을 잘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께 신구(신구)로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효도이고 나라에 대해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충성입니다. 인륜도덕은 유교적 덕목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계율정신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또한 불자들은 이타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특히 불효오역죄를 짓지 말고 절대 삼보(三寶)를 훼손(파괴)하고 비방하는 행위하는 죄업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현지사 -부처님 계율을 실천하는 선봉**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지계(持戒)의 공

덕으로 개인적으로는 3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오탁악세에서 5계10선·인륜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사회를 정화하는 큰 보살행이 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지사는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정신을 선양하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 10월 19일 (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교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여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봉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2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버스운행입니다.
- 문의 033)243-1787, 1795

